

POLITICS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군산~목포 110km, 5차 국가철도망 계획 포함을”

서구의회, 주민청구조례안 접수 안형주의원 등 19명대표자 청구

광주 서구의회는 18일 서구 첫 주민조례청구인 '광주 서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들이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 의회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직접 민주주의의 중요한 수단이다.

올해 서구의 조례 제정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는 3447명(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다.

이번 주민조례청구로 접수한 '광주 서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은 서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제도, 정책 등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일정 포인트 도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해당 조례는 '광주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서구의회에 청구된 조례라 의미를 더한다.

김재만, 임후균, 심해경 등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과 안형주 서구의원 등 총 19명의 청구인 대표자가 청구했다.

특히 안형주 서구의원 의원(사진)은 지난 2월 제328회 임시회에서 '광주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해 주민조례청구의 문턱을 낮췄다.

안형주 의원은 "이번 계기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발굴하고 제안하여 제도화하는 발전적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oonhsyng1@y4040.com

광주 '시당지기' 민원 84% 처리 전화 9853건 중 8272건 응대

광주시가 지난해 8월 특·광역시 최초로 특별채용한 'AI 당지기'가 당직민원의 84%를 처리하는 등 당직지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톡톡한 'AI 당지기'의 활약으로 광주시가 민원 편의성 및 행정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는 호평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특별채용한 인공 지능(AI) 당직민원 처리시스템 'AI 당지기'가 올해 2월까지 7개월 동안 총 9853건의 민원전화를 받았고, 이 중 84%를 처리했다고 18일 밝혔다.

AI 당지기가 받은 민원은 대중교통 불만 신고 등 민원접수 768건, 단순응대 5941건 등 민원응대가 6709건으로 집계됐다.

또 담당 당직기관으로 직접 연결된 건수가 1563건(5개 자치구 962건, 상수도사업본부 137건, 재난안전상황실 279건, 종합건설본부 185건 등)이었다.

'AI 당지기'는 실시간으로 당직전화를 응대(음성·보이스ARS)한 뒤 5개 자치구, 종합건설본부 등 해당 민원 처리기관에 자동 연결하거나, 담당부서에 전달하는 등 민원의 편의성을 높였다.

그동안 시민들이 해당 민원의 당직기관으로 연결을 원할 때 기존에는 해당기관 당직번호를 안내도 받은 뒤 다시 전화를 걸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시스템 도입 후 자동으로 당직번호 문자안내를 받고 연결까지 가능하게 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당직 근무에 따른 직원 업무 피로도와 당직휴무로 인한 업무공백 해소를 위해 당직제도를 특·광역시 최초로 폐지했다.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업무에 대해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한 AI시대 혁신사례로 꼽힌다. news@kwangnam.com

전남도-전북도-6개 시·군 서해안 철도 계획 반영 결의

김영록 지사, 건의문 서명 “균형 잡힌 투자 등 필요”

목포와 전북 새만금을 잇는 '서해안 철도'를 건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전남도는 18일 국회에서 서해안 철도 국회 정책포럼이 열려 두 지역 광역·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전문가 등이 전남·북 핵심 교통인프라로서 사업추진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

포럼은 전남 출신 이계호·서삼석·김민이, 전북 출신 신영대·윤준병·이원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해 박지원·신정훈·문금주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1부 행사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6개 시군 시장·군수는 '서해안 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에 서명·결의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서해안철도 국회 정책포럼'에서 주요 내·외빈 및 참석자들과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김영록 지사는 "SOC는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다. 지역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SOC 투자가 필수"라며 "그동안 지체됐던 남해안 철도 건설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등과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 완공을 향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이제는 서해안 철도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와 행사에 참석한 시장·군수들도 "대한민국의 지역 균형발전,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해안 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부 행사에서는 김진희 연세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는 등 전문가,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서해안 철도 건설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서해안 철도 사업은 군산에서 목포까지 110km를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사업으로 총 4조 791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서해안권 경제벨트의 완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구간이 연결되면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 산업·물류 거점 기능 강화, 관광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서해안철도는 기존 서해선(경기충남)과 장항선(충남전북)과 연계돼 인천에서 목포까지 연결되는 핵심 간선철도로 기능할 수 있다. 철도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을 수립 중이며, 2025년 하반기 확정할 계획이다. [박정철 기자 holbul@gwangnam.co.kr](mailto:news@kwangnam.com)

여야, 정부에 이달 내 추경안 편성·제출 요청키로

제출 시한 두고 입장차·연금개혁 다룰 특위 구성도 신경전

여야는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 (현행 9%), 소득대체율 43% (현행 40%)의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논의할 국회 연금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두고 이견을 보여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원내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회의원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점을 민주당이 질타했다"며 "그래서 3월 중에는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요청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편성권은 기본적으로 정부에 있다. 여야가 정부에 언제까지 내라고 강요할 수 없다"면서도 "그런 부분은 여당에서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가능한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소득대체율 43%에 합의한 가운데 연금특위 구성 등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 합의했다"며 "출산·군복무 크레딧과 저소득층 지원 관련 부분도 큰 틀에서 합의돼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합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에서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문제를 해결한 뒤 특위 문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할

지. (특위 구성안에 '합의처리 의무') 문구를 기재할 것인지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그동안의 주장대로 특위 구성안에 '합의처리 의무' 문구를 명시하자고 했지만 야당은 연금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마당에 굳이 문구를 포함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주장도 구체적인 합의는 뒤로 미룬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회동에서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열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법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돼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kwangnam.com](mailto:news@kwangnam.com)

“내란 100일...‘경제·사법·외교’ 총체적 위기”

조계원 “해결 방법은 현재 조속한 ‘윤석열 파면’”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 원내부대표·사진)은 18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100일 청구서를 제시하며, 윤석열 파면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회의에서 1919년 3.1운동, 1960년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 1981년 군부독재 저항, 그리고 2025년 3월의 민주주의 수호 투쟁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3월 광장에서 시민이 함께 피워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7일 윤석열 탄핵 촉구 피켓 시위 중 유명을 달린 민주당 광주 북구를 지역위원회 신상길 당원의 명복을 빌었다.

조 의원은 "윤석열 내란 100일 청구서를 보면 경제는 침체, 사법질서는 참담, 외교는 폭망"이라며 "국민이 짊어져야 할 경제 청구서는 144조 원의 코스피 시가총액 증발, 31조 원의 세수결손, 1.5% 이하로 조정된 성장률 전망, 물가 상승과 생산·소비·투자 감소라는 삼중고로 요약됐다"고 평가했다.

사법 청구서에 대해서는 "서부지법 폭동으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윤석열은 검찰의 비호 아래 구속 취소를 받아 탈옥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치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윤석열 탈옥의 도구가 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북한, 이란, 시리아 등과 같은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한미 동맹 역사상 초유의 사태이다"라고 지적하며 폭망 상태의 외교 청구서를 질타했다.

특히 "스웨덴 연구기관이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서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진단했다"며 "윤석열과 극우세력이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란 결국 윤석열만을 위한 계엄과 탈옥의 자유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파 내란으로 대한민국 국력이 추락하고, 민주주의는 신음하며, 외교는 무방비 상태이다"라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즉각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kwangnam.com](mailto:news@kwangnam.com)

이재종 예비후보, 매머드급 원팀 선대위 뜬다

‘고고 캠프’ 선거사무소 오늘 개소...주철현·이계호 등 참여

이재종 더불어민주당 담양군수 후보(사진)가 19일 오후 2시 '고고(고향으로 GO) 캠프' 선거사무소의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은 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 이날 참석할 예정이다. 이계호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위원장 등 국회의원을 비롯해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이후와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윤건영, 박수현, 고민정 등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탄핵정국으로 인해 영상 축사를 보낼 계획이다.

이어 4·2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이재종 더불어민주당 담양군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합동 발대식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남도당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은 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이 맡았고, 총괄공동선대위원장은 박지원(해남·완도·진도), 이계호(담양·함평·영광·장성),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신정훈(나주·화순), 김민이(목포)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맡게 된다.

공동선대위원장은 권창엽(순천·광양·곡성·구례), 조계원(여수), 김민수(순천·광양·곡성·구례),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과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되며 총303명의 매머드급 더불어민주당 원팀 선대위가 출범한다.

이와 함께 이재종 선대위는 이계호 국회의원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고, 공동선대위원장은 경선에 참여



했던 김경오, 김용주, 김중진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상임고문단은 최형식 전 담양군수, 선거대책본부장은 박종원, 이규현 전남도의원, 최용만 담양군의원 맡는데 이어 각읍면동협의회장 등 총300여명이 선대위에 참여했다.

이재종 후보는 "선대위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더불어민주당 원팀으로 내란종식과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앞장설겠다"며 "담양이 낳고 담양이 키운 더불어민주당 이재종이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모시며 쌓은 인맥과 경험으로 담양 발전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구 기자 gnnews1@gwangnam.co.kr](mailto:news@kwangnam.com)
[김영환 기자 jwnews@gwangnam.co.kr](mailto:news@kwangnam.com)

민형배 ‘尹파면촉구’ 단식 8일차 병원 이송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 앞 농성장에서 8일째 단식 농성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이 18일 새벽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함께 단식 농성 중인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격정하던 일이 일어났다"면서 "단식 8일째 최악 상태에서, 광주 동지의 비보에 내내 슬픔에 잠겨 잠 못 이루던 민형배 국회의원이 끝내 119로 병원을 이송됐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눈이 쏟아지던 간밤에 발견된 고장으로 인한 극심한 추위로 더욱 (민 의원의) 상태를 악화시킨 것 같다"고 전했다. 민 의원의 보좌진은 "민 의원이 혈당 관리 약을 먹고 있는데, 지난 17일부터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졌다"며 서울 중랑구 모 병원에 긴급 이송하게 된 배경을 설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18일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news@kwangnam.com

명했다. 민 의원은 병원에 실려 가기 직전 이날 새벽에 "단식농성 여드레째로 접어드는 심야, 잠들지 못해 천막을 열어나니 함박이 평평 내린다. 불맛이 아토틱이려운가, 새 봄은 정녕 더디 오려는 것인가"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mailto:news@kwangnam.com)